

# 트와이스 '모어 앤드 모어' 사흘째 차트 정상 '신바람'

### 발매 하루 만에 26만장 앨범 판매...자체 최고기록

그룹 트와이스가 신곡 '모어 앤드 모어' (MORE & MORE)로 독보적 명성을 입증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1일 오후 6시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와 동명 타이틀곡으로 컴백했다. 발매 당일 국내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싹쓸이 했고, 3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지니 뮤직, 빅스,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에서 정상을 지키며 사흘째 원톱의 클래스를 보이고 있다.

트와이스는 13연속 히트는 물론 더욱 더 뜨거워지는 인기를 특별히 증명하고 있다.

한터차트의 발표에 따르면 새 음반 '모어 앤드 모어'는 2일 오후 7시50분을 기준으로 하루 만에 26만5280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인 미니 8집 '필스페셜' (Feel Special)의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15만 4028장을 훌쩍 뛰어넘는 자체 최고 기록이다. 또 새 앨범은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의 30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했다.

'모어 앤드 모어' 뮤직비디오는 3일 오전 9시 현재 유튜브 조회 수 3000만 뷰를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수성하고 있고, 2일 기준 한국과 영국, 캐나다, 브라질 등 21개 주요 지역에서 트렌딩 순위 정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트와이스는 데뷔 이후 가장 긴 공백기를 가지며 9개월 만에 컴백한 만큼 팬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앞서 차현은 지난 2일 JT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이집&'의 일일 기상 캐스터로 기습 등장했고, 이어 3일 KBS1 '6시 내고향', 7일 SBS '런닝맨', 7일 MBC '구해줘! 홈즈', 8일 KBS2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다.



# 이지안 "미스코리아들, 김광규에 꽃혔다" 증언

### '우사다2' 스페셜 게스트 김광규 '여심 저격남' 등극



'우다사 시스템즈' 이지안이 "김광규가 미스코리아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났던 매력남"이라고 육성 증언한다.

3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MBN '우다사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하 '우다사2') 12회에서는 스페셜 게스트로 자리한 배우

김광규가 '여심 저격남'에 등극한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우다사 공식 남사친' 신동엽은 게스트로 출격한 김광규를 '우다사 시스템즈'에게 소개하면서 "어머마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완전 매력적인 사립"이라

고 칭찬한다.

이에 미스코리아 출신 이지안은 "예전에 (김)광규 오빠와 여럿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기가 엄청났다"고 맞장구 친다. 이지안은 "그 자리에 권민중 언니, 최성국 오빠, 미스코리아 선후배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모든 여자들이 김광규 오빠에게 꽃혔다"고 증언한다.

김광규는 '미스코리아'들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에 대해, "물레 캐머라인 줄 알았다"고 축스러워 한다. 하지만 이지안은 "광규 오빠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는지 큰 반응이 없었다"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 김광규는 "사실 최성국씨가 굉장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날 (최성국이) 습(미용실)까지 다녀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라며 겸손한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우다사 시스템즈'의 연애 이야기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가운데, 신동엽은 "남녀가 사귀는 때, 1일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돌발 질문을 던진다. 박은혜는 "손잡은 날이 (내겐) 1일이다. 손잡으면 무조건 사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경란은 "사귀다는 말로, 서로 확인해야 1일이 아닐까?"라고 '온도차'를 보인다. 이를 들은 '우다사 시스템즈'는 "그럼 (김경란-노정진은) 사귀지도 않는데 온도 잡고 팔짱도 끼는 거냐?"며 분노해 김경란을 당황케 한다.

'우다사 시스템즈'의 거침없는 연애 토크 외에도, 100일을 맞은 김경란 노정진의 로맨틱 양평 데이트, 드라마와 연극 오디션에 도전한 박현정의 고군분투기 등이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다사2' 12회는 이날 오후 11시 방송된다.

# 현영 "전성기 시절 백지 수표까지 받았다"

### 조영구·허경환·여현수와 리다오스타 '돈의 맛' 특집 출연

방송인 현영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성기 시절 백지 수표까지 제시 받았다고 고백했다.

3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현영 조영구 허경환 여현수가 출연해 '돈의 맛' 특집을 꾸민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현영은 "전성기 시절 백지 수표까지 받았다"라고 고백했다. 계속해서 설의를 거절하는 현영에게 관계자가 "얼마 받고 싶으세요? 부르세요"라며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고 털어놓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현영은 전성기 때와 다름없는 8등신 몸매로 시선을 강탈했다. 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쭉한 몸매를 뽐내는가 하면 몸매 유지 비결에 대해서는 "과거의 현영과 싸워서 핫 바디로, 이거예요"라고 털어놓아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가 하면 현영은 남편과의 연애 시절 안영미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고 얘기했다. 남편이 안영미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부



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안영미 역시 어렵곳이 기억난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어 스튜디오에 웃음을 채웠다는 후문이다.

연 매출 80억원의 의류 사업 CEO로도 활동 중인 현영은 '드림통' 사기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다. 현영은 친한 지인의 말만 듣고 드림통 5개를 1억원이나 주고 샀다고 해 대체 드림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 오지호X신소울 '태백권' 크랭크업...하반기 개봉

영화 '태백권' (감독 최상훈)이 크랭크업 했다.

3일 (주)그노스, 풀잼컴퍼니(주)에 따르면 '태백권'이 모든 촬영을 마무리하고 크랭크업했다. '태백권'은 태백권의 계승자가 사라진 사형을 찾기 위해 속세로 내려왔다가 지암원을 차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상상초월 코믹액션이다.

태백권의 유일한 계승자이자 사형을 찾으러 왔다 풀지에 지암원 원장이 되어버린 선준역으로는 배우 오지호가 출연한다.

영화 후반부, 마냥 어리버리하지만 했던 성준이 감춰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강력한 한방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반전 매력이 기대된다.

성준의 역적스러운 아내이자 지암원의 실질적 원장인 보미 역은 TV조선 '내안의 맛'으로 주가 상승중인 신소울이 맡았다.

# '개콘', 몰카 논란 속 마지막 녹화

### 21년 역사 아쉬운 마무리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가 오늘 마지막 녹화를 끝으로 21년 만에 휴식에 들어간다.

'개그콘서트' 관계자는 3일 뉴스1에 "이날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다"며 "방송 일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녹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무관중 녹화로 진행된다.

'개그콘서트'는 지난 1999년 9월4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21년간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많은 스타 개그맨을 탄생시킨 것은 물론, 다양한 유행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 하락으로 지난날 초 패시빌이 불거졌다.

이에 KBS는 '개그콘서트'는 폐지가 결

정된 것이 아닌, 휴식기를 갖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방송 환경과 코미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변신을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갖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

또 앞서 KBS에서 불거진 화장실 몰카 사건의 용의자로 한 개그맨이 지목된 바, 어떤 출연진으로 이번 녹화가 구성됐는지도 관심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개그콘서트' 관계자는 "출연진과 관련해서는 제작진에게 공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개그콘서트'는 한때 35.3%의 자체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휴지로 공개 코미디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더해 몰카 사건 논란으로 그간의 명성마저 얼룩지면서 아쉬움 속에 휴식기를 갖게 됐다.



# 비·티파니 '블랙아웃 화요일' 동참

### 백인 경찰에 목 졸려 질식사 흑인 조지 플로이드 추모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목이 졸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외 대중음악계 스타들이 '블랙아웃 화요일' (black out tuesday)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가수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은색 사진과 함께 'blackout tuesday' 'black lives matter' 등 해시태그를 게재하며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에 동참했다.

'블랙아웃 투스데이' (Black Out Tuesday) 측은 '블랙아웃 화요일'은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을 최근 형의 시위가 일어나자, 미국 음악업계가 6월2일 하루 동안 일손을 내려놓고 연대해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추모에 동참하자는 취지 속에 벌인 캠페인이다.

소녀시대 멤버이자 솔로 가수 티파니 영은 최근 자신의 SNS에 "나는 인종 평

등과 정의를 위한 싸움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를 찾고 있다"며 "흑인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지원을 위해 기금에 기부할 계획"이라며 '블랙아웃 캠페인'을 지지했다.

에릭남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종차별은 죽지 않았다"는 글과 함께 'BLACK LIVES MATTER'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이밖에도 가수 보아, 현아, 빅뱅 태양, 제시카, f(x) 출신 엠버와 무나, 버벌진트, 타이거JK, 슈퍼주니어 예성, 헨리, 비투비 서은광, 던, 그레이, 제이미, 싸이, 윤하, 비, 이하이는 물론 배우 임수정, 배두나, 정일우, 박소담, 수현, 한혜연, 신아영 등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에 동참의 뜻을 전했다.